

강론 ...

실낱같은 희망을 일구며



박동진 신부
(노동·농촌사목 전담)

어느 선교사가 전하는 한 자매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할아버지가 신유박해로 인해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신앙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예수 마리아를 외우면서 기도하고 미신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이 자매님도 천주교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아버지의 모습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 시집을 갔는데, 미신행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시부모님과 시누이들로부터 많은 설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이 견디며 아버지가 기도하던 모습대로, '예수 마리아'를 외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 마리아'가 누구인지,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도 몰랐지만, 그저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것이 가장 옳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할머니가 된 어느 때, 소문으로 근처 마을에 자신처럼 미신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마침내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읊조리던 '예수'와 '마리아'가 누구인지도, 또 왜 미신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지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교리를 배우고 영세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자녀들을 설득시켜 함께 교리문답을 공부하여 영세를 받게 되었지만, 이미 나이가 든 이 자매님은 시험에 계속 떨어져서 영세를 받을 수 없는 처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선교사는, "이 자매님이

길고도 험난한 여정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은 성령께서 이끄신 것이 분명한데, 교리문답을 제대로 못 외운다고 영세를 주지 않는다면, 아마 성령께 슬프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분단된 지 오랜 세월이 흘러 신앙의 씨앗마저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녘은 신앙에 있어서 새로 일구어야 할 곳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이야기에서처럼 마음속으로 이어오는 신앙의 뿌리가 어딘가에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 뿌리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어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성어린 보살핌의 한 중심에는 우리의 기도가 자리해야 할 것입니다.

숨머리 생각

아직도
이산의 피눈물이
마르지 않은 땅이기에...



문정섭
(베드로)

알렉산드리아의 성 치릴로(370-444)

윤 클레멘트 신부
교구청 사무처

그는 370년에 에집트에서 태어났다. 그는 사제품을 받은 후, 그의 아저씨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를 돕는 일을 했다. 그리고 412년에는 그분의 뒤를 이어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의 주교가 된다. 그는 '육화의 박사'라고 불리는데, 그는 끊임없이 네스토리움(Nestorianism)에 반대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하느님의 어머니이심"을 꾸준히 옹호했기 때문이다.

네스토리움은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의 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했던 이설(異說)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한 인간일 뿐이고 그분의 신성(神性)은 출생 후에 얻어진 것으로서, 그분의 위대한 인간적 장점들로 인하여 얻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네스토리움은 예수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으로서 인간의 몸이 되신 육화(肉化)의 신비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 되심을 부정한다.

치릴로는 431년에 에페소 공의회 의장이 되는데, 이 공의회에서 네스토리움은 이설(異說)로 판단 받고, 네스토리우스는 교황 첼레스틴 1세에 의하여 교회공동체로부터 떨어져나가게 된다. 하지만, 치릴로는 자신의 생애동안에 네스토리움과 그 이설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많은 고통을 받아야 했다.

그는 자신의 주교직을 수행하면서도 많은 저술을 하게 되

는데, 주로 가톨릭 믿음의 수호(守護)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특별히, 그는 자신의 긴 생애동안에 많은 시간을 천주의 모친 되시는 동정녀 마리아에 관한 논문들을 썼다. 그는 74세가 되던 해에, 자신이 평생 옹호하고 지키려하던 예수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의 나라와 천주의 모친 동정녀 마리아가 기다리는 천국으로 떠났다.

우리가 이 풍진 인간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을 전하고 실천하며 옹호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그리 쉽지 않다. 믿음은 믿는 데에 그 마지막이 아니고, 그 믿음을 전하고 실천하며 그리고 자신의 삶과 목숨을 다하여 지키고 보존하는 데에 그 진수(真髓)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알렉산드리아의 성 치릴로!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선물과 보물로 받은 신앙과 진리를 자신의 한 생애를 통하여 내내 믿고 옹호하였으며 가르치고 글로 써서 전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드린다. "하느님, 당신은 성 치릴로를 통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심과 동정녀 마리아가 하느님의 모친 되심을 전하고 옹호케 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참된 당신의 신앙과 진리를 살고 전하는 데에 한몫을 다하게 하소서. 아멘."



입당송 시편 28(27), 8-9 참조

주님은 당신 백성에게 힘이시며, 당신의 기름부음받은 이에게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님, 주님의 백성을 구원 하시고, 주님의 소유에 강복하소서. 그들을 영원히 이끄소서.

제1독서 욥기 38,18-21

확답송 시편 107(106), 23-24, 25-26, 28-29, 30-31 (© 1)

◎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다.

제2독서 2코린 5,14-17

복음 환호송 루카 7,6

◎ 알렐루야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났도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 알렐루야

복음 마르 4,35-41

영성체송 시편 145(14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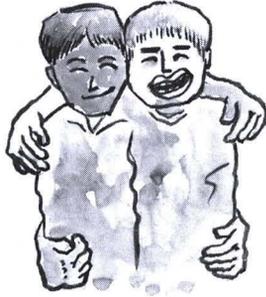
주님, 모든 눈이 주님께 비라고,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때에 주시나이다.

문닫고 들어갈 수야 없는 일

시내버스에서 연출된 한 풍경이다. 목발을 짚은 아저씨가 차에 오르자, 그걸 본 한 자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곧 내린다며 문가로 갔고, 자매는 그냥 서 있었다. 바로 그때에 젊은 여인이 차에 오르고, 그녀는 그 빈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목발을 짚은 아저씨가 한 마디 했다. 그 빈자리는 젊은 아가씨가 앉아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 아가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래서 큰 소리가 났고 잠시동안 평화가 깨졌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게 마련이다. 목발아저씨나 자매가 자리에 앉았더라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그들은 두서너 정류장을 지나서 따로따로 내렸다. 그래서 자리에 앉지 않았던 모양이다. 어쩌면 목발을 짚고 자리에 앉았다 일어서는 일이 불편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그들만의 어떤 사유 때문에 자리가 비었고, 젊은 아가씨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어서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모양이다. 이래서 시끄러워진 것이다.

언제 어디서고 쉽게 벌어지는 이러한 사소한 해프닝이 갈등을 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서로 아는 사이에서 더 그러하다. 적당한 갈등은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갈등은 풀리는 게 좋다. 그러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화해에 맘을 써야 한



다. 그리고 그 화해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잘잘못을 가리는 일이 먼저라는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나, 그걸 가리기로 들자면 대개는 자유롭지 못하다. 또 그런걸 가리는 일은 어찌 보면 하느님의 몫이다.

그렇다고 해도 화해를 바라는 맘에서 먼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는 일이 쉽지는 않다. 대개는 알량한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명분 따위를 내세워 머뭇거리기만 한다. 또 어떤 이들은 분위기에 밀려서 시늉만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생각나는 한마디가 있다. “문닫고 들어와!” 말 그대로라면 만나지 말자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들이 무심코 하는 이 말의 속뜻은 밖이 추우니 안으로 들어오거들랑 문을 잘 닫으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따위의 말일랑 하지를 말고, 그저 넓은 도량으로 먼저 손을 내밀자.

6.25의 아픔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한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모로 애써왔다.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었다.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그만둘 일도 아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해서, 북녘에서 고생하는 동포들과 이산의 아픔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모른 척 지나칠 수야 없지 않은가.

한상갑(바오로) · 그림 : 황의성(세례자 요한)

▶ 문화의 향기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 교황 베네딕토 16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5,000원



“사랑은 갈망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영원을 바라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라는 말씀을 그의 첫 번째 회칙(2005. 12. 25) 제목으로 삼았다. 회칙은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함을 지적하면서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사랑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의 빛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십시오”라고 권고하고 있다.



본당 주요소식 미리보기

◆아중 성당

자매 결연식 : 진안 성당 어은동 공소,
27일(화) 오전 9시 성당 출발

◆덕진 성당

바오로 성서 대학 : 화요일 27일(화) 오후 8시,
목요일 29일(목) 오후 2시

◆소룡동 성당

젊은이 성령 묵상회 : 7일(금)~9일(주일)

◆우림 성당

성서대학 : 매주 (수) 오후 8시, (목) 오전 10시

◆신태인 성당

제2기 흡사랑, 자식사랑,
어르신캠프 : 7월 4일(화)~6일(목)
대상 : 65세이상 / 장소 : 선비문화체험관
접수마감 : 6월 30일까지

◆장계 성당

감자캐기 행사 : 7월 2일(주일) 10시 미사 후
감자캐입니다. *감자 할인과 감자 파티



차 봉사는 전신자들에게 차 한 잔의 여유를 통하여 친교의 시간이 되고, 실제 삶 속에서 서로의 관심과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눔으로써 아름다운 본당 공동체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홍보국 정리

● 옥봉·지곡 성당 일치를 위한 월드컵 거리응원

지난 6월 13일(화)에 옥봉 성당(주임=오성기 신부)과 지곡 성당(주임=김혁태 신부)은 독일 월드컵 한국의 첫경기를 맞아 선교와 일치를 위해 거리응원을 펼쳤다.

이날 약 1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로간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지역사회의 선교에 구심점이 되었다. |김영수, 두의균 기자

● 함열 성당 일치를 위한 차(茶) 봉사

함열 성당(주임=강명구 신부)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교중미사 후 350여명의 전신자들에게 M. E. 단체(대표=김형태) 부부들이 정성으로 끓여 준비한 생강차, 커피 및 음료 등 봉사를 우천을 제외하고 매주 실시하고 있다.

● 제2차 홍보분과 위원 연수

교구 홍보국(국장=서석희 신부)은 지난 6월 18일(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사진(image)'이란 주제로 본당 홍보분과 위원을 대상으로 제2차 홍보분과 위원 연수를 가졌다. 이날 연수는 가톨릭사진가회 강택수 강사의 '테마가 있는 사진(어떻게 찍을 것인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이란 주제의 강의와 서석희 신부의 '이미지(image)와 복음선교', '교구 홍보국자료실 활용방법 및 전례시기에 따른 매체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연수를 통하여 미디어전자문화 안에서 각 본당 홍보분과 위원들이 복음적인 사명으로 미디어 자료를 이용하여 본당행사 및 교육에 필요한 매체를 만들어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홍보국 취재

● 쌍교동 성당 초등부 영세식 및 첫영성체식

쌍교동 성당(주임=박성팔 신부)은 지난 6월 18일(주일) 초등부 20명의 첫영성체가 교중미사중에 있었다. 한 달여 동안 세례식과 첫영성체를 위하여 준비해 온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맞이하는 첫영성체를 통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내몸에 모시는 벅찬 기쁨을 부모님과 모든 신자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강인식 기자

● 복지성당 예수 성심상 축성식 및 주임신부 영명축하식

복지 성당(주임=방의성 신부)은 지난 6월 18일(주일) 본당 주임신부 영명축일 축하식과 더불어 예수 성심상 축성식을 가졌다.

KIA 기아자동차
제 성공의 비결은 바로 신용입니다.
· 승용, 1톤, RV등 전자중 다양한 할부이벤트 (계약금 10만원, 최장 60개월 할부가능)
· 신차구입시 중고차를 최고가로 매입해드립니다.
· 타사 차량도 상담해드립니다.
■ 차량상담 : 011-793-8686
■ 야간 : ☎(063)254-7226
담당:차장 김영기(스테파노), 장영주(요셉파나)

가톨릭 학생들을 위한
뉴질랜드 현지학교 체험
가격 : 275만원(항공권 별도)
기간 : 7월 22일~8월 19일까지
대상 : 초,중,고생
주최 : EDUCARE, 더니든 north교구
문의 : 은 아삭(이사악) 011-9476-2421
www.educare-si.net

새롬 리모델링
리모델링/싱크대 제조 전문업체
김영대(갑열)
문의 : 275-9236~7
011-294-6471

강성호 피부과
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비나)
☎(063)255-8700
롯데백화점 옆

28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주최 : 마신부님(Rev. Brendan MacHale)
대학생 : 6/25~8/13(7주) 599만원
초·중생 : 7/25~8/15(3주) 399만원
문의 : (주)그린피스 E&T 02-569-1331

전북대병원 처방 조제전문
대 학 약 국
(전북대병원 신정문 앞)
약학박사 : 김용기(베드로)
☎(063)275-5700
FAX. (063)275-5760

서울방사선과 MRI센터
MRI촬영(전신), C-T촬영(전신)
X-Ray 특수촬영 및 투시
칼라 초음파 검사, 유방 촬영
원장 : 방사선과 전문의 박인숙(아나타시아)
원장 : 방사선과 전문의 정진영
☎(063)278-1312~3

유* 사랑 외과
유방 전문 클리닉
유방암 검진
원장 소 우 성(스테파노)
서신동 E마트앞
☎(063)253-6075



1부 미사, 2부 영명축하행사, 3부 예수성심상 축성식, 4부 국수잔치 순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많은 신자들이 예수성심상 앞에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정겨운 복자 가족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홍보국 정리|



● **오룡동 성당 견진성사 및 본당의 날 행사**

오룡동 성당(주임=이수현 신부)은 지난 6월 18일(주일) 군산 신흥초등학교 강당에서 52명이 견진성사를 받고 오후에는 본당의 날 행사를 가졌다.

본당은 견진성사를 위해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성령 묵상회를 실시했다. 본당의 날 행사는 '주임신부와 함께 꼭짓점 댄스'를 시작으로 장애물 경기, 바구니 농구, 진신자 OX퀴즈, 줄다리기 등의 경기와 경품 추첨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홍은 기자|

고별식이 6월 14일(수) 중앙 성당에서 있었다.

많은 교구 신부, 동창 신부들과 교우들로 가득 메운 이날 장례미사는 이병호 주교의 집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병호 주교는 강론을 통해 "사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짓이겨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삶을 일생을 통해 바쳐야 한다"고 하시며 서 신부는 마지막을 침대를 제대로 삼아 고통 중에서도 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시며 당신 몸을 바치셨다는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인 부활 신앙을 강조하셨다. 고별예식을 마친후에 치명자산 성지로 운구, 성직자 묘지에 안장돼 하느님 품에 안기셨다. |홍보국 정리|

● **서석기(베드로) 신부 장례미사 및 고별식**

지난 12일 선종하신 서석기 베드로 신부의 장례미사 및

|홍보국 정리|

인보성체수도회 종신 서원식



인보성체 수도회(총 원장=박영란 잔다르크 수녀)는 지난 6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수녀 4명의 종신 서원식을 본원 성당에서 30여명의 사제와 많은 수도자 그리고 서원자 가족 친지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장 이병호주교의 집전으로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주님께 올리는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향으로 피워 올리며 빛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본원 수련자들의 미사 전 전례 무용을 시작으로 치러졌는데, 이병호주교는 서원자의 인사 받는 예식에서 "어려운 길을 선

택했지만 성령께서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고 서원자들을 격려했다.

종신 서원식은 수녀들이 수도회에 입회한 후 지원기-청원기-수련기 등 유기서원을 지나 일생동안 하느님을 따르기로 서약하는 예식으로 예식순서에 따라 4명에 대한 청원예절이 있었고, 서원자가 직접 작성한 서원서를 총원장에 드리는 예식과 서원표지인 불변의 황금반지를 주례자가 수녀의 왼손 새끼 손가락에 끼워주는 예식이 있었다.

이어 서원자가 주례자에게 봉헌하는 예식으로 회헌 봉헌(서원자들이 직접필사)과 복음 삼덕(청빈, 정결, 순명) 봉헌이 있었는데 푸른색 장미(청빈을 의미), 흰색 장미(정결을 의미), 빨간색 장미(순명을 의미)를 바쳤다.

마지막으로 본원 중창단의 '짜크라멘티나' 축하 3곡과 인보성체 수도회의 영성을 전례무용으로 표현한 수련자들의 전례무용을 끝으로 마쳤다. |서장경 기자|

젠티아트

전진아 (실비아)

부부국가자격보석감정사
미국보석학회GIA 감정사

☎(063)462-7777 / 018-648-7777

대장항문병 전문병원
장문외과

치질·변비·유방크리닉

전문의 최 성 암(무기)
전문의 안 해 선(사도요한)
전문의 이 철 중

www.jangmun.com
대표전화 ☎(063)834-6000
익산 영등동 육교 밑

대천해수욕장 요나캠핑장 방갈로
여름예약 안내(6/24 개장)

방갈로 : 4인용(4만원) / 10인용(10만원)
(30명이상 단체 : 1인당 7천원) 취사가능
콘도 : 단체실 10명(1만원)/가족실 5명(9만원)
요나특실 25명형 : 13인용(20만원)
6인용 호텔식캠핑트레일러 : 10만원
1일해수욕(20인이상) : 탈의식, 샤워 1인 2,500원
요나식당 한식뷔페 : 1식 4,500원
(예약문의 : 041-934-7758 요나성당 사무실)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일사: 7월 2일(주일) 오후 2시

장소: 서울 돈암동 수녀원

문의 : 011-9319-1690

대상 :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미혼여성

최고의 전국 꽃배달서비스
진선미 꽃집

범근배(방지거) · 박선자(루시아)

중화신동 비상경계장~도청사이
☎ 222-0004

2006년 여름

북유럽 10박 11일 / 동유럽 7박 8일
7월 30일 출발합니다.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전 일 관 광

조선 (안토니오)
문의 : 063-288-666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아동입양 및 후원상담

문의 : 02-764-4741
www.holyfcaec.or.kr /
www.성가정입양원

**마리아 남자수도회
(마리아니스트) 성소모집**

대상 :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자
담당 : 김일영(프란치스코) 신부
문의 : 080-749-8547



교구장 일정

- **사목방문**
6월 27일(화) 전동 · 상관
- **해성학교 이사회**
6월 28일(수) 오전 10시
- **사제평의회**
6월 28일(수) 오후 2시
- **사목방문**
6월 29일(목) 나운동 · 동산동
- **사목방문**
6월 30일(금) 삼례 · 상삼례
- **남미 한국 선교사회 총회**
7월 2일(주일)~7일(금) 페루

미사 · 행사 · 모임

- **전주지역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6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 센터
- **가정방문실 월례미사**
6월 26일(월) 오후 2시 30분
거산황궁 아파트 103동 810호
- **복지병원 후원회 월례강의와 미사**
6월 26일(월) 오후 2시 성바오로 복지병원
차량운행 : 1차 낮 12시 /
2차 오후 1시 20분 중앙성당 앞
- **전가대연 농촌활동**
6월 27일(화)~7월 6일(목) 신태인
- **군산지역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6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해성학원 이사회**
6월 28일(수) 오전 10시
- **사제평의회**
6월 28일(수) 오후 2시 교구청
- **라헬기도모임 생명을 위한 미사**
6월 29일(목) 오후 2시 센터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일반 성소자 모임

일시: 7월 1일(토) 오후 2시
장소: 전주 복자성당 수녀원
문의: 042-253-6300, 010-4761-9217
비고: 수시 상담 가능 02-707-5511

젊은이 피정 '아름다운 나'

일시: 7월 8일(토)~9일(일)
장소: 강화도피정의 집
회비: 1만 5천원
문의: 011-9653-8805, 02-463-8055
착한목자수녀회 · 착한목자관상수녀회

가르멜 남자 수도회 성소모임

일시: 매월 둘째 주일
장소: 광주 가르멜 수도원
문의: 061-334-7415, 010-3169-7416
성소카페 :
cafe.daum.net/wowcarmel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녀회
성소자 피정

주제: 길...
일시: 7월 7일 오후 4시~9일(2박 3일)
장소: 강원도 원주시 수녀원(본원)
문의: 033-743-9781, 017-372-9781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6월 월례미사**
6월 29일(목) 오전 11시 본관 3층 강당
문의: 466-7981
- **군종장교 임관식**
6월 30일(금) 오후 2시 3사관 학교
- **성모기사회 모임**
7월 1일(토) 오전 10시 효자동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월례미사**
7월 1일(토) 오전 10시 송천동
- **포콜라레 모임**
7월 2일(주일) 오후 2시 복자성당교육관
- **군산 하나회 미사**
7월 2일(주일) 오후 2시 나운동
- **2006년 전주교구 가족캠프**
8월 4일(금) 오후 7시~6일(주일) 오후 6시
주제: 새롭게 체험하는 우리가족
대상: 초(4~6학년), 중 · 고 자녀를 둔 가정
장소: 천호 피정의 집
참가비: 4인가족 기준 280,000원
신청마감: 7월 8일(토)
접수 및 문의: 285-0041(가정 사목)
입금: 505-13-0312074 전북은행

교육 · 피정 · 연수

- **신학생 하계 연수**
6월 26일(월)~28일(수) 해월리
-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교육 2단계**
(전주지역, 김정교부, 임순남무진장지구)
6월 28일(수) 오후 2시 삼천동
- **가정성화를 위한 계절강좌 3차**
7월 4일, 11일, 18일 매주(화) 오전 10시
주제:
1일-청소년 자녀에 대한 이해
2일-부모 · 자녀관계에서의 청소년
3일-청소년과의 대화의 다리
강사: 박윤자 / 장소: 센터 3층
참가비: 30,000원 / 마감: 6월 20일
문의: 285-0041(가정사목국)

기타

- **천주교 전주교구에서는 전주시 금상동 (舊소리개재)에 성당을 신축 (2005년 8월 말착공) 하면서 납골당을 분양합니다.**
납골시설요금:
160만원~200만원(개인실)
300만원~380만원(부부실)
분양문의: 교구청 관리국 286-0091
-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기도' 발간 판매**
-정가: 1부당 2,000원
-할인가격: 30부 이상 구매시 20% 할인,
50부 이상 구매시 30% 할인
-문의처: 교구청 사목국(285-0041~3)
* 본당 및 성물방에서는 사목국으로 직접 연락주시기 바라며, 날권 구입은 교구청 온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모집 (영보은혜의 집)**
대상: 사회복지사 0명, 간호사(간호조무사) 0명
자격: 해당자격증 소지자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각 1부
문의: 862-4786 영보은혜의 집

좋은 영화(포럼)-진실한 만남

6월

일시: 6월 28일(수) 오후 2시 센터 3층
상영시간: 27분, 포럼 1시간



주말 'M. E.'에 참가한 이들 부부가 진실한 대화의 작업을 통해 자기 해방 체험과 함께 서로의 참 만남을 이루고 사랑을 회복해 가는 아름답고 의미 깊은 이야기를 다루었다.

새 가톨릭센터 신축헌금 내역(6/11~6/17)

노들담교육수녀회 15,000,000 / 김동길 50,000

전주교구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일시: 6월 30일(금), 밤 11시~새벽 4시
장소: 전동성당
특별강사: 이인복 교수(서울교구)
주관: 전주교구 성령쇄신 봉사회

2006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여름성소캠프

◆ 대학생 · 직장인 남성 일반부
7월 15일(토) 오후 2시~17일(월) 오후 2시
◆ 중 · 고등학생(성소에 관심 있는자)
장소: 경남산청 성심원 / 참가비: 3만원
준비물: 운동화, 여벌옷, 수영복, 세면도구, 필기도구, 목주
문의: 010-7141-5549(이병우 신부)
02-6364-5500(http://www.ofm.or.kr)

임순남 · 무진장 지구 본당 소식

도 통 동

주임신부: 625-0091 사무실: 631-0091 주임신부: 김희태
F A X: 633-0081 수녀원: 635-0091 서목회장: 김기정

- ◎ 축! 제44주년 운봉공소의 날(미사 후 4:30)
- 1. 오늘: ① 모니카회 ② 전례분과 ③ 성전신축 2차 헌금
- 2. 금주 모임: ①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2단계 교육 28일(수) 후2시 삼천동
② 봉성체 - 공소 28일(수) / 본당 29일(목) ③ 12사도회 모임 28일(수) 후 6:30
④ 주일학교 고백성사일 7월 1일(토) 3. 감사헌금: 박병규 20만
- 4. 제2차 성전신축을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바치기: 672,842단 (+2,990)
- 5. 성전신축을 위한 가정 고리기도: 안철호 베드로, 안명실 파비안나 가정 / 오준 토마, 노남순 크리스티나 가정
- 6. 성전신축 헌금: 김희남신부님 300만, 강만진(인월)/김주상 각 100만, 최복덕(인월) 50만, 이완덕 30만, 박철준 12만, 노병대/박철민(이상 운봉공소) 각 10만, 강인숙(삼천동) 2만, 박설향(운봉) 1만
- 7. 차주: ① 뿌리아 ② 성소후원회비 납부의 날 ③ 교황주일 2차 헌금
■ 지난주 봉헌금: 945,500원 ■ 교무금: 515,000원

무 주

주임신부: 322-2308 사무실: 324-0555 주임신부: 이상용
유지원: 324-3555 수녀원: 322-2399 서목회장: 김원태

- ◎ 성서읽기: 6월넷째주간: 유딧기1장-8장
- ◎ 본당50주년 목주기도 봉헌: 금주 11,485단, 계 167,674단
- ◎ 첫영성체,세례식,유아세례: 7월16일(일) 교중미사중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 예비자교리반 야외회: 6월25일(일)교중미사후-상길산
- ◎ 금주공소 미사: 무풍공소
- ◎ 성당청소: 7월1일(토)-사정,고등반
- 1. 금주전례: 해설-이명숙, 독서-이의인,김영애
봉헌-정점남,권복순, 기도-임순옥,강금자
- 2. 차주전례: 해설-권병남, 독서-양효일 부부
봉헌-김영도,남복희, 기도-심창호,김순자
■ 지난주 봉헌금: 705,800원 ■ 교무금: 995,000원

순 창

주임신부: 653-1004 사무실: 652-1004 주임신부: 송호선
F A X: 653-0414 수녀원: 653-3135 서목회장: 정윤열
홈페이지: www.sccatholic.net

- ◎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납부에 관심을 가집니다.
- 1. 금주모임: 뿌리아-미사후, 사목회-27(화)미사후
- 2. 차주모임: 여성분과, 요셉회-미사후, 구역장모임-5(수)전10시
제대회-7(금)미사후
- 3. 금주전례: 교중해설-오숙희,독서-김은자 정준일
- 4. 차주전례: 교중해설-박미숙,독서-윤순일 김용기
- 5. 청소: 금주-하늘의 문Pr, 차주-인자하신 동정녀Pr.
- 6. 감사헌금: 김병윤
- 7. 차량봉사: 금주-2조 차주-3조(안전운행)
■ 지난주 봉헌금: 992,630원 ■ 교무금: 360,000원

쌍 교 동

주임신부: 633-1004 사무실: 633-4004 주임신부: 박성팔
유지원: 633-4006 수녀원: 626-1004 서목회장: 양장석
홈페이지: http://www.ssangkyo.org

- ◎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마태 18,22).
- ◎ 축! 본당의 날(주보 - 예수성심): 오늘, 주보 - 예수성심과 기도생활
연사 - 윤양호 신부님, 교중미사 후 축하잔치가 있습니다.
- 1. 모임안내: ①성우회 - 25일(일) 교중미사 후
②사목회 - 30일(금) 후 7시30분
- 2. 예비자 교리(마리아 수녀님 반): 27일(화)부터-사무실에 신청하십시오.
- 3. 함께하는 여정 교육: 7월 4일(화), 오전10시부터, 각 구역(반)장
제대회원, 성심부녀회원등 여성 제단체회원
- 4. 성경 통독: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준비물 - 성경경과 필기도구.
- 5. 선교를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운동: 현재 170,190단
- 6. 교황주일: 7월 2일(일)은 2차헌금이 있습니다.
- 7. 가톨릭센터 신축헌금 총 신인액: 153,175,000원, 납입액 - 86,219,000원
- 8. 감사헌금: 양삼순 - 70,000원
■ 지난주 봉헌금: 1,995,350원 ■ 교무금: 1,771,000원

진 안

주임신부: 433-0750 사무실: 433-2541 주임신부: 김태운
F A X: 433-7599 수녀원: 433-1531 서목회장: 김길용
연락처: 433-3177 유지원: 433-2293

- ◎ '주님의 말씀' 성경읽기를 생활화합니다.
- ◎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구하고, 갈라진 형제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1. 오늘은 만민의 날이며,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돕기 2차 헌금 있습니다.
음식나누기 봉사는 어은동 공소에서 수고해주시겠습니까.
- 2. 대건회 회원님들께서는 오늘 야외행사에 많은 참석바랍니다.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순창성당

오 수

주임신부: 644-9386 사무실: 642-6319 주임신부: 서광석
F A X: 642-6319 서목회장: 변홍섭

- 1. 본당발전과 선교활성화를 위한 목주기도 누계: 167,270단
- 2. 성서를 통독합니다.
- 3.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4. 병자봉성체 신청 받습니다.
- 5. 금주전례: 해설 - 안경희, 독서 - 황일주, 신광일
차량봉사: 김진태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6. 차주전례: 해설 - 문정희, 독서 - 박태균, 김양례
차량봉사: 변홍섭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 실

주임신부: 643-3661 사무실: 642-2164 주임신부: 박종중
F A X: 642-2164 수녀원: 643-3660 서목회장: 신태근

- 1. 공소미사: 신전 - 오늘 후 7시, 성수 - 28일(수) 후 8시
- 2.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기금모금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감사헌금: 배귀자(안나) - 5만원 / 김길선(사무엘) - 10만원
신덕숙(율리아) - 2만원
- 4. 모임: 구역장회의 - 오늘 교중미사 후, 분도관
뿌리아 - 차주 교중미사 후
선지회 - 차주 교중미사 후, 분도관
- 5. 차주전례: 해설 - 이원설, 독서 - 백인수 부부
봉헌 - 이정후 부부
■ 지난주 봉헌금: 767,500원 ■ 교무금: 1,015,000원

장 계

주임신부: 353-0610 사무실: 351-0111 주임신부: 정승연
F A X: 351-0605 수녀원: 353-0611 서목회장: 이상화

- ◎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쌍암신자 초대주일
- 1. 신자들의 도움 뿌리아: 29일(목) 미사 후
- 2. 주간 축일: 29일(목)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 3. 다음 주일: 교황주일, 삼고신자 초대주일
- 4. 다음주일 전례담당: 우연태, 김중환, 이경춘, 김세진, 구경창
- 5. 가톨릭센터 신축 성금: 김제일, 정영록, 정옥자, 노동식, 이정례
- 6. 감사헌금: 원철희 3만, 이순일 2만, 이강녀 10만, 이인술 2만
- 7. 즐거운 여름 신앙생활: ①미사 전 준비 ②복창 단정 ③어린이 미사
- 8. 다음 주일 감사제기: 주님의 축복으로 감사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680,750원 ■ 교무금: 442,000원

장 수

주임신부: 351-8888 사무실: 351-2264 주임신부: 정진봉
F A X: 351-5226 수녀원: 351-1228 서목회장: 박동표

- ◎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 ◎ 오늘 오후 2시: 외국인들을 위한 미사
- 1. 금주모임: 30일(금) 후8시 요셉청년회
- 2. 금주참석공소: 상동 차주참석공소: 덕산
- 3. 금주공소미사: 변암 차주공소미사: 수분
- 4. 금주전례: 이유미(테오도라) 차주: 김호준(아오스당)
- 5. 금주독서: 장오섭(오샘), 강순이(메로니카)
차주독서: 정연수(가브리엘), 최선영(아가다)
- 6. 금주봉헌: 이영기(마태오), 김원남(아가다)
차주봉헌: 김삼석(필립보), 김옥순(말바라)
- 7. 차량봉사자: 금주-김철수(마르코) 차주 - 정용석(이냐시오)
■ 지난주 봉헌금: 393,850원 ■ 교무금: 330,000원

- 장소는 운장산후양림입니다.
- 3. 7월 2일은 교황주일이며 2차헌금 있습니다.
- 4. 금주봉헌: 강호균 요양 부부
차주봉헌: 구동수 베드로 부부
- 5. 성당청소: 순교자의 모후
■ 지난주 봉헌금: 829,000원 ■ 교무금: 1,305,000원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6년 6월 17일 현재)



단위: 천원

구분	예산	납부액	비율
본당	15,000,000	6,013,777	40.09%
사제단	1,000,000	881,426	88.14%
개인 및 타지역 (특별헌금)	1,500,000	479,746	31.98%
수익사업	500,000	221,808	44.36%
합계	18,000,000	7,596,757	42.20%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문정, 삼삼례
- 신축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본당 : 삼례, 옥봉
-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우아동, 임실, 고창, 진안, 둔율동
- 신축기금 배정액 60% 이상 납부한 본당 : 고산, 인후동, 황등, 서학동, 장계, 여산
- 신축기금 배정액 50% 이상 납부한 본당 : 금암, 중앙, 오룡동, 월명동, 나바위, 용안, 신평, 신태인, 복자, 대야, 나운 2동, 함열, 시기동, 수류, 팔마

‘쌍백합’ 여름호(제13호)가 나왔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교구계간지 ‘쌍백합’ 여름호(제13호)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호에는 ‘인생의 춘하추

뜨거운 열정으로 무장, 치열한 투신과 몰입으로 변화와 발전, 쇄신과 성장의 삶을 살며 ‘열정의 꽃’을 피우는 사례를 담았습니다.

이밖에도 일상의 삶과 신앙생활 주변에서의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혼자 간직하기엔 아까운 따뜻한 이야기와 메마른 삶과 영혼에 사랑과 평화의 물을 주는,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기는 다양하고 유익한 글들이 들어 있습니다.

동-여름 : 열정’을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몸집을 불러 나이테 하나를 더 늘리는 질푸른 나무처럼 배움·봉사·신앙생활 등 현장에서

〈정기구독신청〉

쌍백합

전주교구청 홍보국
문의 : (063) 285-0041